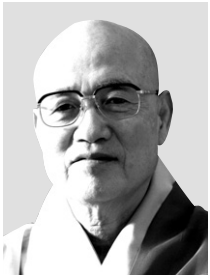


우리 사회 희망과 나눔의 등불 되길 서원합니다

반야의 지혜로 법등 밝히길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



부처님께서는 무명과 어리석음, 그리고 탐욕의 질곡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에 반야의 지혜로 법등을 밝히시는 자비의 광명으로 오셨습니다. 갈수록 빨라지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한번쯤 멈추어 서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에는 '보현행으로써 보리를 이루겠다(以普賢行悟菩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삼세일체제여래(三世一切諸如來) 최승보제제행원(最勝菩提諸行願) 아가공양원만수(我皆供養圓滿修) 이보현행오보제(以普賢行悟菩提) 과거와 현재, 미래세 모든 부처님의 가장 훌륭한 깨달음을 위한 행과 원을 내가 모두 공양하고 원만하게 닦으니 보현행으로 써만 보리를 깨닫게 되네.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자비의 등(燈), 배우지 못한 사람을 위한 지혜의 등(燈),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꿈과 희망의 등(燈), 미워하는 사람을 위한 용서의 등(燈)을 다함께 들어 보현행의 큰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립니다

김희욱 동국대 총장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립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그의 시집 《님의 침묵》의 '군말'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괴른 것은 다 님이다. 나는 해 저문 별관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해매는 어린 양이 괴루어서 이 시를 쓴다.”

“기루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립니다. 그런데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기루는 것은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루는 것은 사실 우리들 전부입니다. 너와 나를 분별하지 않고 사랑하여 하나 되는 대자유의 생명이 '우리'인 까닭입니다.

부처님은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고타마 싯다르타라는 역사적 개인만이 아니라 부모미생전 본래면목으로서의 우리의 근원 생명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오신날은 매순간 '부자로 살자'는 삶의 전회가 우리의 정신과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주인 찾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길, 그 길이 바로 정등정각의 상구보리 길이며 자비실천의 하화중생 길입니다. 하늘에 꽃비가 내립니다.

중도로서 사회 화합 이끌어야

정병조 금강대 총장



오늘은 위대한 스승인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과 만물이 부처님오신날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사상을 한마디로 압축하기는 어렵지만 그 분의 삶의 '자비와 여로'였습니다. 부처님은 그 자비를 중생, 즉 모든 생명 있는 존재로까지 확대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 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 분처럼 살고자하는 서원일 것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 부처님처럼 되는 일이 오늘날처럼 힘든 적이 없는 듯 싶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다변화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과 악이라는 명백히 극단적인 축이 있었다면 현대는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누가 더 선한가를 따지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불교적 중도가 조율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세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대결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이를 초월하는 원용조화에 있다할 것입니다. 그 화합의 힘은 내면의 완성, 인간성의 회복이아말로 이 시대의 서원이어야 합니다.

어느새 천지는 생명의 빛으로 가득차고 약동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물과 빛입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흐르며, 빛은 음습한 골짜기에까지 미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어김없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분이 오신 뜻이 세상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타행 실천이 부처님 마음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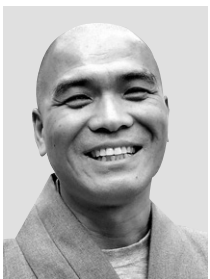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 250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세대간, 계층간의 양극화와 개인주의로 인한 사회문제가 국가의 중심과제로 등장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하에 우리 불자들이 화합과 상생의 한길로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중생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고행하신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씌워주기 위해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측은지심(惻隱之心)과 그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저희 중앙신도회도 이렇게 소중한 마음의 실천을 위해 전국의 불자님들과 함께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진행하며 이웃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어지러움을 전국 방방곡곡의 따뜻한 등불로 밝혀, 그 공덕으로 온 세상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불자들 모두는 거룩하신 세상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사회에 희망과 나눔의 등불이 되기를 서원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사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웃과 나누는 삶, 주저 말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대표 퇴휴 스님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 온 누리 비추고 있는 진리의 빛, 자비의 등불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날입니다.

송진탐에 올라 200여일을 보내고 있는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빈부 이념 지역 종교 세대를 넘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만큼은 세상의 온갖 시름을 다 내려놓아야겠지만 우리가 서있는 현실은 그렇게 한가하지 못합니다.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도 계속되고, 양극화와 경제난, 사회 갈등으로 인한 고통이 한국사회와 지구촌 곳곳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봄 내내 마음을 졸이고 지켜보았던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안개속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자등명 범등명의 자세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에 주저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뜻인 일체 생명의 자유, 평등, 평화를 얻는 그날까지 생명평화의 공동체, 정토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십시오.

부처님오신날, 부처님께서 펼치신 자비행이 보다 널리 펼쳐질 기원합니다.

자리이타서 한걸음 더 나가야

최용춘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불기2557년 부처님오심을 수희 찬탄합니다. 온 세상을 맑게 비치는 햇살처럼 모든 분들에게 자비와 무량대복이 깃들여 역경이 사라지고,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요즘, 사회의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자살률이 높아지며, 갑의 위치에서 을에 대한 폭언 등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사회관 심지어 국가관도 그 차이가 심합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한 사회에 같이 살면서도 의식은 서로 크게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주관대로만 사물을 바라보며 바른 지식을 알려주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하니 각자의 의견이 편파적이고, 경직되어 갈등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 갈등을 치유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함께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 곳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불자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리이타의 정신 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자세입니다. 우리불자님 모두 보현행자가 되시어, 이 땅에 보현보살의 원력을 실현하는 불법의 동량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랏일을 부처님 일같이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와 자비의 광명으로 사바세계의 고통 속에서 신을 하는 우리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의 세계로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현과 성도로 비로소 고통 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물질문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신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고 인간성과 도덕성은 실추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공무원불자연합회와 소속 불자들은 '나랏일을 부처님같이, 국민을 부처님같이'라는 창립취지를 되새기며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무를 수행으로 삼아 상구보리로 향하고,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하화중생의 방편으로 삼아 자리이타의 삶을 완성하겠다는 큰 원력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공무원불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생활해 갈 것을 다짐합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경탄하며,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길을 따라 평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법향은 경계가 없습니다

임희웅 포교사단 사단장



지혜와 자비 양쪽은 부처님께서 법계의 실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사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자비광명이 충만하고 성스러운 가르침이 깊이 뿌리내려 사악한 모든 먹구름을 걷어내고 서기 충만한 법기(法氣)가 온 누리에 가득하여 못 생명이 한결같이 행복해지기를 기원 합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길잡이가 되시어 구경열반으로 가는 길을 안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법삼보에 귀의하여 스스로 무명을 밝히는 포교사가 되고, 물과 같은 성품으로 하심(下心)하고 하심(下心)을 본심 삼아 가장 낮은 자세의 봉사를 통해 모든 분이 다 안락하고, 함께 부처를 이루는 그날 까지 신명을 바쳐 헌신하는 포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만이 이 사회와 민족국가를 평화롭게 하고 환희와 감동을 주는 미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체제에는 많은 모순과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외로움과 무관심,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과 절망 뒤에 안락과 행복이 무르익어 다가오는 진리를 깨달아 모든 것을 수용하는 실천력을 통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눔과 무소유의 실천 정신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 땅에 정토세상 구현되기를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모든 생명의 어버이이신 자비로운 부처님의 탄생을 기쁨과 환희심으로 찬탄합니다. 저희 여성 불자들은 연등축제가 중요무형문화제로 지정된 첫 해인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더 큰 기대와 환희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인간 각자의 존엄성을 일깨움으로써 나의 존엄함과 똑같이 타인의 존엄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호 존중의 가치와 문화 속에서 생명 교유의 자유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높은 자살률과 저 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에 이어 남북 관계 긴장 고조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으로 많은 때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세상에 희망과 평화를 일깨워야 합니다.

최상의 안락을 누릴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더 큰 원력으로 정진합니다. 그리하여 불교의 저변을 확대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법을 실천하여 자유와 평등의 정토세상이 이 땅에서 구현되기를 발원합니다.

참된 자비 실천 간절히 발원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



만물이 소생하는 신록의 계절, 해아리기 어려운 번뇌에 붙잡힌 사바세계 중생들을 구원코자 부처님이 오신 날에 사방찰(十方刹)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인류는 나날이 때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가고 있어 전 세계가 넓지만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투쟁과 갈등, 욕망과 빈곤 등 모두를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주변에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님 공양 말고 배고픈 사람 밥을 먹여라”라는 속담이 있는데, 보람도 없는 공양이 아니라, 굶주린 자들을 도와 밥을 먹이는 것이 참된 길이라는 뜻입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이 부처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가족에 대한 보살핌, 이웃에 대한 보살핌, 모든 생명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배려가 삶 속에 녹아 있어야 바른 불자입니다.

오늘 같이 좋은 날, 석가모니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따르는 대천세계(大千世界)에 참된 자비의 실천이 행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청년 불자답게 가행정진 해야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전국의 모든 청년 불자와 함께 부처님 오신의 뜻을 깊이 새기며 봉축합니다.

최근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내외 정세의 불안과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무명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 당시를 살아간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깨달음으로 몸소 나누신 의미를 깊이 새기며, 불교 또한 종교 본연의 기능과 역할로서 사회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불자청년들 또한 성찰과 발심을 통하여 우리 사회공동체가 울퉁이 갈 수 있도록 응징정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적으로는 우리 청년 불자 스스로 깨달음 자체가 내 삶과 동떨어지거나 내생의 일로 인식하는 특별한 경지로 생각하지 않고, 수행풍토를 만들고, 외적으로는 중생의 고통을 나누고, 사회적 요구에 화답하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일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모두 세상에는 희망을, 마음에는 행복을 주는 부처님오신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내면 가꾸는 대학생 불자되길

박지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로 다른 가치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모르 채 기체처럼 스펙 쌓기에 매진하는 현재의 대학생들을 위해 오늘에 오시는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십니까? 어쩌면 부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스스로의 삶 속에서 괴로움을 마주하고 존재의 소중함과 주체됨을 기억하고 가꾸는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올 해는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번 50주년을 기념 포인트로 삼아 부처님 법 안에서 건강하고 생기발랄한 대학생 불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국의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 화합하고 합심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알고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대학생 불자들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인연 맺고 불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고 격려와 함께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려대장경 대작불사 수희 동참을

신상길 (재)고려대장경진흥원 유지재단 이사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불자님들은 무명을 밝혀 정토되는 세상을 구현하는 깨달음의 사회와 운동에 매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법원에서 진행한 세계 최대·최초로 석판본 경판대작불

사에 보인 전국 불자님들과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석판본 경판불사는 불교문화재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제고시키고 역사문화 가치복원의 새로운 동기원을 개척하는 찬란한 불교문화예술의 급자탑이 될 것입니다.

글에만 집착 말고 반야종지를 심자

윤기순 종교세계신문사 발행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제자의 의지를 세우고 위없는 불도를 구하는 불보살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글에만 집착하지 말고 관바로 본뜻을 알아서 날 날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근본 종지에 부합한다면 스승 없

는 지혜가 자연히 나타나 선지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방일한 생각, 탐욕에 집착하지 말고 마리에 불은 불을 끄듯이 공부에 정진하십시오.

무상한 세월이 유수와 같아서 아침의 이슬 같고 목숨은 지는 해와 같으니 일흔광을 불가경입니다.